

# 평화에 대한 나의 인생보고서

- 2019 동미선 -

2019년 6월 7일 금요일 드디어 전부터 기대했던 곳으로 떠나는 날이었다.

물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4시간이나 걸렸기에 아침 5시부터 학교에 와야했지만,

난 절리온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정도는 그곳에 가기 위해 충분하다고 느껴졌다.

심지어 그 전날 밤에는 잠이 안와서 1시간밖에 못 잠만큼 설렜다.

친구들과 버스속에서 관련 영화도 보고, 숙제도 펴고 옷길 사진도 찍다보니 어느새 정원에 도착해 있었다. 이곳에 와서 제일 인상깊었던 장르는 가깝고도 먼 그곳 북한을 직접 볼 수 있는

평화전망대와 소이산이었다. 먼저 평화전망대를 갔었는데 이곳은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서 처음부터 신기했다. 거꾸로 올라가는 기분이랄까 뭔가 대강고 말이 점점 먹어지면서

아래가 다 보이는데 모노레일 안에서도 이렇게 멋진데 평화전망대에서 보면 얼마나

멋있을까하고 내 기대도 올라가듯이 계속 올라갔다. 그곳에는 많이 다 유리코 되어있어서

앞 전망이 빡빡히 다 훑어있어 마치 영화관 스크린을 보는 느낌이었다.

간단한 영상을 보고 건물만이 아닌 땅에 있는 게 없는 바깥에서 그 장면을 내 눈으로 보니까  
유리코만 밖을 볼 수 있는

경치도 물론 멋있지만 내가 보고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이구나라는 생각부터 뭔가 뭉클하면서

신기했고 여러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곳에는 500원을 넣으면 저 멋있는 나무의

나뭇잎까지 보일 정도로 가깝게 볼 수 있는 망원경도 있어 500원을 넣고 친구들이랑 번갈아 몇 초씩

돋아보면서 서로 감탄했던 기억도 난다.

또, 그곳에는 군인아저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도 사진찍고 저희들도 사진찍느라

서로 어떻게 찍나 구경도 하며 재밌었다. 또 비도 안와서 상쾌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쉬는 것도 좋았다. 평화전망대에서 찍은 사진 

또 밑으로 내려와서 탱크 앞에서 우리반 아이들과 친구랑(인사하트 만들때)

단체사진을 찍고 있던 중에 훈수쌤이 부탁하셔서 군인아저씨들과 같이 단체

사진을 찍으실걸 기억에 남았다. 사진으로 남겨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다음으로 기억나는 장소가 소이산이었는데 그곳은 처음부터 힘든 곳이었다.

꼭대기까지 가려면 기찻길에 그야말로 등산이었고, 올라가면서 짐을 봐야

다고 하겠지만 올라가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곡소리가 나왔다.

뭔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기분이랄까 제일 힘든 구간에는 묵묵히 올라갔다.

그곳에 올라가면서도 물론 힘들게 가장 크게 느껴졌지만 끝까지 올라가면

이런 멋진 풍경이 보일거라는 기대도 있었기에 '한발자재만 더!' 라는 건

죽으며 외치며 내가 원하는 곳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다.

또 올라오는 길에 풍양을 나타내는 구조물들도 있어 못지않게 재미있었다.

나도 풍양과 평화를 나타내는 구조물을 직접 디자인해 이곳에 놓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더 욕심을 부리자면 풍양이 된 미래의 우리나라에 풍양기념

박물관이 생겨서 그 안에 전시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다.

나의 꿈은 미래의 풍양인 우리나라와 함께 영광있는 상상을 하니

정말 행복해졌다.



만약 풍년이 한해일 어떻게 생활할지 걱정하는 것 같아 보였어.

도시락을 모으려 했어  
왔던 것도 없애

이렇게 드디어 제삼에 모르게 되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았다. 위장 반감기에 있는 것처럼 비중에 포함된  
이름 때문 제삼 사진으로 다 대가 없음을 알았었다.  
제삼에 대한 그 사진



사진으로 다 담지 못해서 아쉬움을 느꼈었다.  
이런 곳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는 정말 감탄스러웠다.  
비밀에 이런 풍이 존재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아서 정말 좋았다. 정말 긴 시간이었고,  
작고 큰 감동을 주었기에 이 DMZ 표현을 제삼을  
기쁘게 한 풍수생애 감사드리고, 모든 태풍을 날씨가  
무엇이 되었지만 비가 오기까지 내리면서 햇빛도 내리쬐는  
모습이 정말 대단한 날이었기에 모든 비록 풍수생애 날이  
였다.